

제1주제 : 국내외 걷고 싶은 길 조성사례와 시사점

김주석(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 I. 스페인에서 불어온 걷기 좋은 길 열풍
- II.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정책동향
- III. 국내외 걷는 길 사례
- IV.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스페인에서 불어온 걷기 열풍

01.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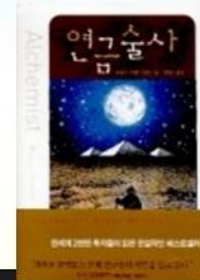
스페인 Camino De Santi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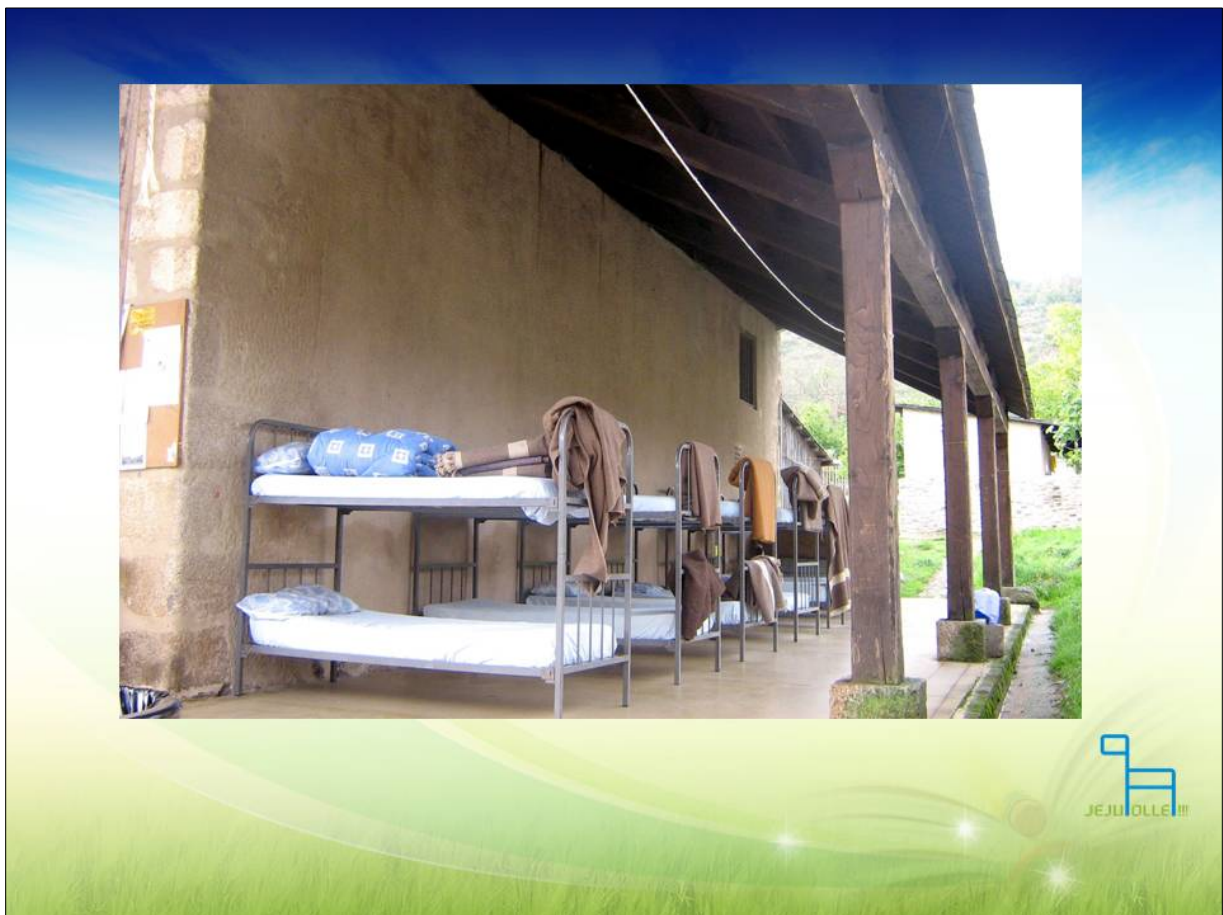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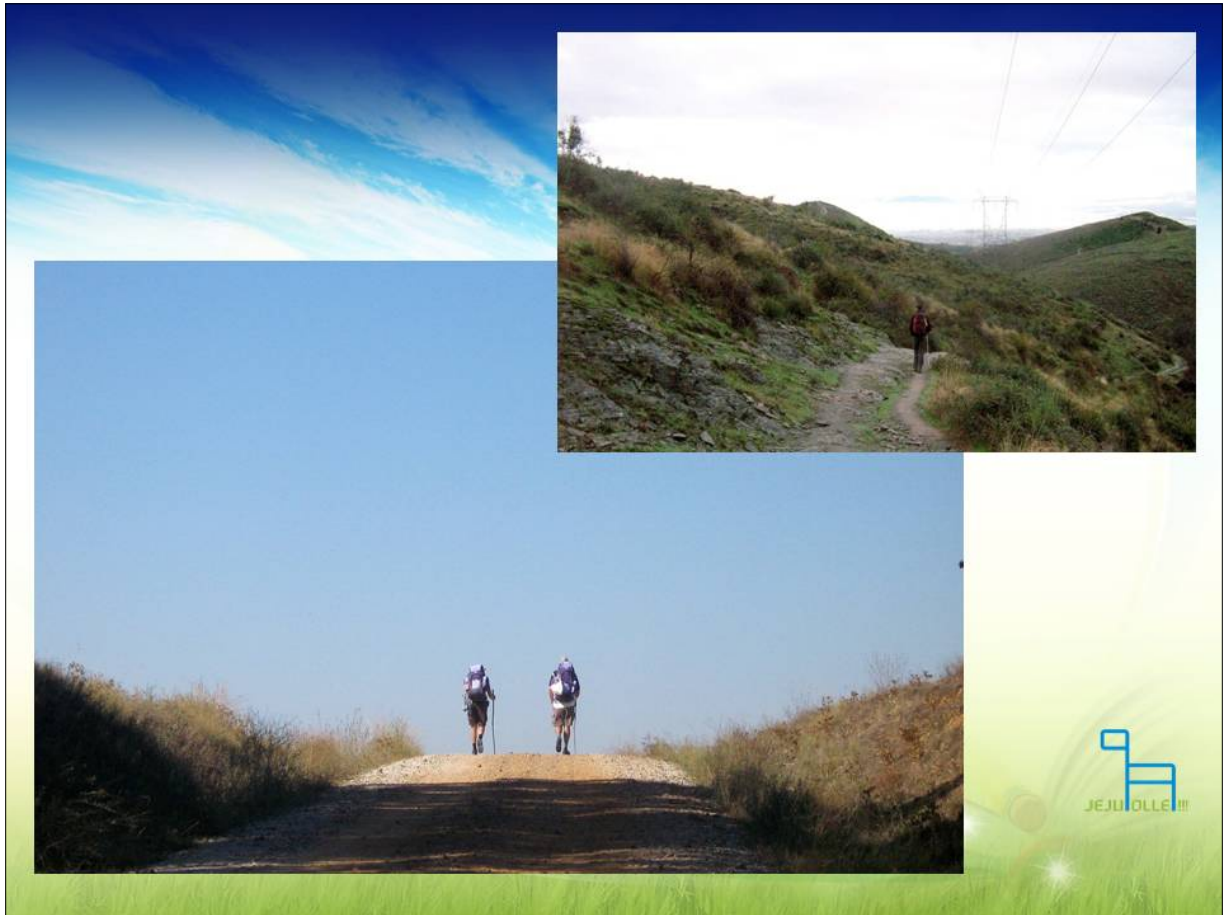
구간	소요시간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국경마을 '생 장 피드포르' 시작•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종점• 총 800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09월 10일에 출발• 2006년 10월 15일에 도착• 총 36 일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아곱의 전도길이자 중세 이후 천주교 신자들의 순례코스• 전세계 도보여행자들의 가장 사랑하는 구간



산티아고를 세계에 알린 파울로 코엘료

산티아고를 한국에 알린 서명숙







JEJUOLLE!!!

우리나라 정부 부처별 정책동향

01. 환경부, 생태문화탐방로
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생태탐방로
03. 산림청, 산림문화체험숲길

환경부, 국토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개념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는 도보 중심의 길

구분	개념·장역
생태·문화 탐방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권장하는 권역 ① 강길 권역, ② 해안길 권역, ③ 숲생태길 권역
생태·문화 탐방로 구분	자원 기준 숲길, 강길, 해안길, 마을길, 바닷길 관리 기준 국가급, 광역급, 지역급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가능구역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권장구역 · 탐방잠재가치 분석결과에 의해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한 구역 · 보전필요지역 제척, 완충지역 일부 및 전역지역에 탐방로 조성 권장



- 전국단위 조성계획 연구(2007년) 완료
- 국토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운영 가이드라인 (2008년 완료)
- 시범사업 추진 (2008년~현재): 안동퇴계오솔길, 봉화청량산길 등

문화부,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개념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특색있는 스토리로 엮어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중심의 길,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구분	개념
문화생태 탐방로	테마(스토리)가 있는 길 ① 역사문화형(옛길, 순례길), ② 예술문화형(소설길 등), ③ 생활문화형(마을길 등)



- 테마(스토리) 중심 구간 사업
 - 영남대로, 관동대로, 십이령, 백두대간, 4대강 등(예시)
- 2009년 현재 기본방향 설정 용역, 시범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연구 등 추진



산림청, 산림문화체험숲길 조성사업

개념

지역의 가치 있는 산림자원 및 문화·역사자원을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옛길 등과 연계하여 자원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장거리 보행공간
(노선별로 지리산숲길, 금강소나무숲길 등 고유 명칭 부여)



- 테마가 있는 산림문화체험 숲길
 - 금강소나무숲길, 낙동정맥오백리숲길, 영남알프스숲길 등(예시)
- 2009년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걷는 길 사례

01. 영국의 내셔널트레일
02. 일본의 장거리자연보도
03. 제주올레
04. 지리산길, 기타 길 만들기

영국 National Trail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조성된 **15개 노선**의 총연장 4,000km의 장거리 루트
- 1965년 National Trail 최초 도입
- 기존에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길을 서로 잇고, 끊어진 길은 신설하는 등 40여년간 개·보수작업
- 이용수단: 도보, 자전거,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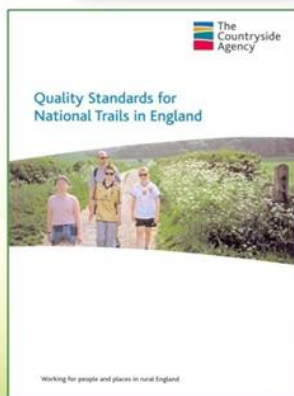
- 연간 1,200만명 이용
- 내셔널 트레일 설문조사 결과
 - 이용객의 95%가 만족
 - 순환루트 필요성 제안



영국 National Trail

National Trails 품질기준(Quality Standards)

노선, 시설물, 서비스, 정보, 안내표지 등과 관련하여 트레일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 제시



내셔널 트레일 표준화의 기본 원칙

- 가능한 많은 사람이 내셔널 트레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트레일 통과지역의 생태학적, 문화적, 자연경관 특징 보호
- 트레일을 즐기는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Quality Standards for National Trails in England

내셔널 트레일 품질 기준의 목적

- 내셔널 트레일 네트워크의 계획, 관리 및 유지에 있어
돈의 효용가치 제공
- 트레일 이용자의 즐거움 배가



- ✓ 어떤 기관/조직이 품질 기준에서 제시된 모든 규정 항목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님
- ✓ 품질 기준은 일관된 목표로 관련 조직간의 협력방안 추구
- ✓ 도토리 로고는 내셔널 트레일 상징물로 고품질 규정과 관리에 대한 인증서 역할



Quality Standards for National Trails in England

내셔널 트레일 표준화의 기본 원칙

- 가능한 많은 사람이 내셔널 트레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함
- 트레일이 통과하는 지역의 생태학적, 문화적, 자연경관 특징을 보호
- 트레일 루트를 즐기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내셔널 트레일 3가지 접근 유형



느린 걸음걸이

- 단기체류 방문객
- 구간 : 주차장, 대중교통 접근지역(음식, 음료 이용 가능 시설구비)~개인선호지역
- 단거리 구간 도보/승마 이용



보통 걸음걸이

- 반나절 소요
- Ambling보다 강도가 강하고 거리가 긴 도보/승마
- 이용객을 위한 상세한 안내표지판, 중간 거점지역 연결
- 휴식장소 요구됨



빠른 걸음걸이

- 하루 이상의 방문
- 급경사, 장거리 등 힘든 지역 및 격렬한 활동 수반
- 안내표지판 설치, 자연적인 지형 관리등이 부족할 수 있음

19

영국 National Trail Cotswold Way

- 위치 : 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
- 길이 : 164km(102마일)
- 평균 도보소요일수 : 7일
- 이용수단 : 도보(100%), 자전거(19%), 승마(19%)
- 가장 높은 지점 : Cleeve Common(317m)

- 출발점 : Chipping Camden의 Market Hall
- 종착점 : Bath Abbey
- 역사유적지
 - Roman heritage at Bath
 - Neolithic burial chamber at Belas Knap
 - Sudeley Castle and Hailes Abbey



20

Cotswold Way 개발 과정

Broadway Tower



1단계 (1970~1998년)

기반조성

- 1970년 루트 오픈(카운터 의회, 램블러 협회, 자원봉사자 파트너십 결과)
- 1998년 실행가능성 분석, 환경부 장관에 의해 내셔널 트레일로 개발 승인

개발작업 수행

- 1999년 Cotswold Way 루트를 내셔널 트레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개발 시작
- Natural England에 의해 100% 자금 제공

2단계 (1999~2007년)

3단계 (2007년 5월~)

내셔널 트레일 공식런칭

- 2007년 5월24일 내셔널 트레일로 공식 런칭
- Natural England, 고속도로 관계 당국, 자원봉사자 파트너십에 의해 유지 - 관리

21

Cotswold Way의 길



22

Cotswold Way 트레일 시설물



노란색(도보 전용)



파란색(승마 전용)



자주색(노면 상태 불량)



방향표시관

23

Cotswold Way 서비스 시설

숙박시설



▲ B&B



◀ 캠프장
(campsite)

24

Cotswold Way 서비스 시설

관광안내센터



출발점 지역 서점



25

Cotswold Way 웹사이트

웹사이트



● Cotswold Way 일반정보

- Cotswold Way 이미지
- 관리정보(2002년 ~)
- **인간보고서, 사업계획**
- 업그레이드, 루트 변경

● 트레일 소식

● 여행 계획

- Cotswold Way 지도
- 루트 변경
- 숙박, 교통, 관광지
- **여행가방 배달서비스**

● 출판물

- 루트 안내 & 관련 정보
- 무료 출판물
- 뉴스레터
- 리플릿

26

일본 장거리 자연보도

- 일본 전역을 종단, 횡단, 순환하는 길, 자연자원+역사문화자원이 연결된 보행자 중심의 길
- 1970년부터 총 8개 권역의 자연보도 조성 (총 길이 약 21,319km)
 - 도카이, 큐슈, 추코쿠, 시코쿠, 수도권, 토호쿠, 주부호쿠리쿠, 간키(현 이상의 동알경제권 지역)
 - 국립공원 소관의 일부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다수의 도부현(都府縣)에 걸쳐 있음
- 이용객수 : 1999년 41,349천명 ⇒ 2004년 60,663천명 [46.7% 증가]



명칭	지자체	총길이 (km)	연간이용자 수(천명)
도카이자연보도	1도2부8현	1,697	6,718
큐슈자연보도	7현	2,587	7,315
추코쿠자연보도	5현	2,072	2,307
시코쿠자연보도	4현	1,637	2,926
수도권자연보도	1도6현	1,665	6,251
토호쿠자연보도	6현	4,374	11,454
주부호쿠리쿠 자연보도	8현	1,029	8,464
간키자연보도	2부7현	3,258	15,228
합계	-	21,319	60,663

27

도카이나자연보도

- 후지산과 에도시대 역사자원이 어우러진 총 1697km의 자연과 문화·역사 관찰로
- 도쿄도의 다카오 국정공원에서 시작해 오사카부 미노 국립공원까지 연결
- 11개의 광역지자체로 이어짐
- 특징 : '역사' + '생태' + '문화'

코스 구성

-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개별적인 수십 개의 코스로 분할
- 지역에서는 각각 10~20km 안팎으로 코스가 나뉨
- 개별 코스는 각각 생태, 문화, 역사, 지역 탐방 등 각각의 테마와 주제에 맞게 구성



28



제주올레

- **(사)제주올레가 조성한 도보탐방로**
 - 14개 코스, 2개 알파코스의 총연장 약 266km
 - 올레 : 집 대문에서 거리길까지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제주방언
- **코스 개발 및 안내**
 - 기존의 길 중심으로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
 - 코스별 올레지기(코스안내자) 지정, 올레탐방 지원
- **운영**
 - 사단법인,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올레, 세상을 향해 열린 길

‘올레’ 는 집 대문에서 마을 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어.
집에서 마을로, 개인에서 사회로, 제주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다.
제주올레의 성공으로 인해, ‘올레’ 는 원래의 의미에서 확장돼 도보여행길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자리잡았다.



JEJU OLLE

31

올레길을 만드는 몇 가지 원칙

- 되도록 아스팔트 길은 피한다.
- 사라진 옛길을 찾는다.
- 새로운 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방식을 쓴다.
- 새 길의 폭은 1m를 넘지 않는다.
-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보수할 때는 군, 민 등 다양한 인력을 참여시킨다.
- 사유지는 올레가 소유하지 않되, 통과하도록 조율한다.

JEJU OLLE

제주올레의 비전

- 한국의 '산티아고'
 - 전 세계 도보 여행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보 트레킹 코스.
 - 연간 15만명의 세계 걷기 여행자들이 거쳐 감
- 제주도 해안을 따라 한바퀴 도는 제주올레코스 완성
 - 2012년 경. 총 450km 이상, 30개 코스 나올 예정.
 - 제주올레 길을 완보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체류해야 함.
- 그린컬처 투어리즘의 세계적인 명소로 도약
 - 제주의 자연 경관과 문화, 풍습 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행지



제주올레의 Sign



제주올레의 모습들



35

제주올레의 모습들



36

환지리산 생태역사문화 관찰로 조사 및 기본계획


-





퇴계오솔길

- **환경부 시범사업 :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퇴계오솔길 전망대~고산정: 3km)**
- **특징**
 - 낙동강과 청량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암종택, 공주당, 고산정 등 문화자원
 - 퇴계 이황선생 등 조선시대 문인들의 여행지
 -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 소재
 - 도산서원, 퇴계대실, 퇴계종택, 예안향교, 이육사문학관 등 문화관광자원 연계






41

죽령 옛길

- 소백산 제2연화봉과 도솔봉이 이어지는 절룩한 지점에 자리한 해발 689m의 고개
- 약 2천년에 걸쳐 우리나라 동남지역의 교통 대동맥
 - 삼국시대 : 고구려 국경으로 신라와 대치, 격전장
 - 1910년대까지 경상도 동북지방 여러 고을이 서울왕래에 이용 : 과거길, 출장길, 유통물산의 길
- 주요 생태문화자원
 - 생태자원 : 소백산 야생화체험단지, 희병폭포(영주8경)
 - 역사문화자원 : 희병사, 죽령주막
 - 기타 자원 : 소백산 풍기온천, 소백산 천문대(연화봉, 1383m)
 - 스토리 : 죽지랑과 모죽지랑가, 죽령제와 상원사 등종, 희병사와 두운대사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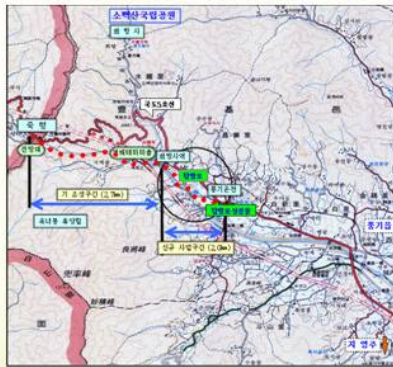
죽령 옛길

● 죽령 옛길 코스

: 풍기온천~창락역유적~무쇠다리 옛터~희방사역~죽령주막~전망대 [4.7km]

* 희방사옛길 : 연화봉~희방폭포~희방사~매표소 [1.5km]

● 특징 : 영남의 3대 관문 중 하나로 옛날 선비들의 과거길



○ 범례 : ●●● 탐방로, ■■■ 계획시설



○ 범례 : — 가 폭원로, ●●● 가운 탐방로, — 갈과 폭원로 탐방로
○ 소요시간 : 왕복 5시간 (4.7km)
○ 탐방구간 : 도보
○ 소요예산 : 20천원



43

죽령 옛길



○ 죽령옛길 : 2.5km 40분, 희방사옛길 : 1.5km 20분 소요



44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01. 사례분석

02. 시사점

45

국외 사례분석

영국 National Trail

- 정보전달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이용편의 제고
-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및 파트너십 명확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지역내부의 수요유발로 지속가능한 모델

일본 장거리자연보도

- 관련 주체간 역할분담 및 파트너십
- 현재 이용되는 길을 가능한 한 활용
- 제약조건을 역이용하여 보도 조성 고려
- 개념적 연결성 추구, 물리적 연결 지양

46

국내 사례분석

제주올레

-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힘으로 개발된 사례
- 현재 사용중인 길을 따라 자연훼손을 최소화
- 도보자의 이용교육 필요
- 지역사회에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방향

시범사업(퇴계오솔길 등)

- 등산로에 가까워 걷기 힘든 길, 선택권 제한
- 다양한 생태경관자원에 대한 정보 부적절한 전달
- 지역주민의 참여 및 교류 미흡
- 운영관리주체의 역할분담에 대한 컨센서스 부족

417

시사점

기존 길 활용, 개발 최소화

- 기존 길을 중심으로 도보 길 만들기
- 최소한의 필요 시설물 조성

지역밀착형 유지관리

- 관련 주체간 거버넌스체제 구축
-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 지역성과 차별성으로 특화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제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생태탐방수칙 작성 및 이용자 교육
- 노선의 자원, 시설, 대중교통, 노선상태 등 정보제공
- 이용객의 선택권 최대화

418

